



미 증시, 경제지표 부진이 호재로 작용하며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9 일(화) 미국 증시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및 구인이직건수 부진으로 연준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호재로 작용하며 강세 (다우 +0.85%, S&P500 +1.45%, 나스닥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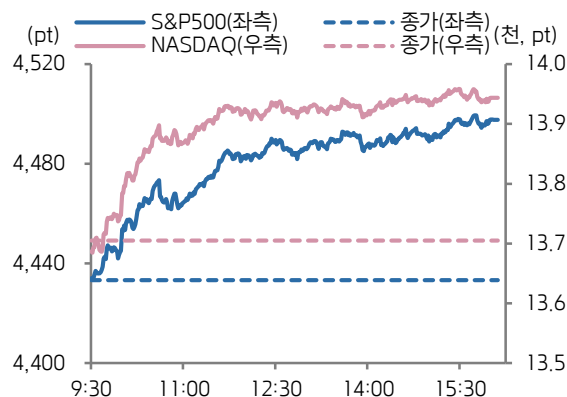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106.1(예상 116, 전월 114)로 전월대비 하락. 특히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지수는 전월 153.0에서 144.8로 하락해 지난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반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5.7%에서 5.8%로 소폭 상승해 5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 집계측은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완화로 안도감을 누렸던 소비자들이 7월 이후 휘발유 가격과 식품 가격 상승 등에 의해 소비 심리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

미국 7월 JOLTS 구인이직 건수는 880만건(예상 946만건, 전월 950만건) 증가하며 예상치 하회, 2021년 3월 (840만건) 이후 가장낮은 수준 기록. 자발적 퇴직자 수는 354만건으로 전월보다 25만 3천건 감소, 이직자는 350만명으로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이직 역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국영은행들이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과 예금 금리를 5~20bp 인하할 예정이라고 보도. 이에 따라 38조 6000억 원(약 7000조 원)에 이르는 중국의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액의 상당 부분이 금리 인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 "지난해 6월과 9월에 이어 최근 1년간 총 세 차례 예금 금리를 낮추는 것"이며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고 주식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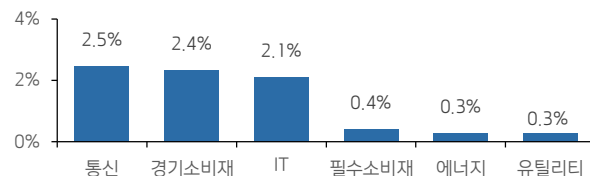
업종별로 통신(+2.5%), 경기소비재(+2.4%), IT(+2.1%) 강세, 유틸리티(+0.3%), 에너지(+0.3%), 필수소비재(+0.4%) 약세. 전자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3.87%)는 2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강세. 게임 시스템 매출이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했으나, 가전제품, 홈시어터 및 휴대폰 등 판매감소로 온라인 판매와 비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 CEO는 올해가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낮은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테슬라(7.69%), 리비안(8.67%), 니콜라(4.84%)등 전기차 업종이 강세 보인 가운데, 니오(-1.27%)는 중국 경제의 광범위한 침체로 2분기 손실 8억 3510만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차량 인도량 역시 부진하며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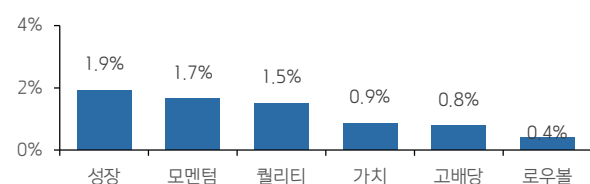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52.16	+0.34%	USD/KRW	1,321.88	-0.09%
코스피 200	333.76	+0.37%	달러 지수	103.53	-0.51%
코스닥	916.24	+0.75%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471.32	+0.26%	USD/CNH	7.28	+0.01%
S&P500	4,497.63	+1.45%	USD/JPY	145.89	+0.01%
NASDAQ	13,943.76	+1.74%	채권시장		
다우	34,852.67	+0.85%	국고채 3년	3.740	-2bp
VIX	14.45	-4.18%	국고채 10년	3.845	-2.7bp
러셀 2000	1,895.54	+1.42%	미국 국채 2년	4.894	-15.4bp
필라. 반도체	3,629.57	+2.59%	미국 국채 10년	4.120	-8.2bp
다우 운송	15,853.14	+0.86%	미국 국채 30년	4.230	-4.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26.47	+0.76%	WTI	81.36	+0.25%
MSCI 전세계 지수	684.51	+1.31%	브렌트유	85.49	+1.27%
MSCI DM 지수	2,975.50	+1.36%	금	1965	-0.01%
MSCI EM 지수	987.58	+0.97%	은	24.78	-0.05%
MSCI 한국 ETF	63.35	+1.34%	구리	379.3	-0.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2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8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8.4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연준 긴축 불안 완화 등에 따른 미국발 호재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최근 순매도 기조를 보였던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전환 가능성 3. 엔비디아 등 미국 AI 주들 동반 강세가 국내 관련 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올해 1~2 분기 중 연준의 긴축 자체보다는 긴축이 가져올 부작용(침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지표 상 호재가 증시에도 호재(Good news is good news)"로 인식됐던 적이 있었음.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연준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 이르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는 쪽으로 변한 모습. 즉, "지표 상 호재가 증시 악재(Good news is bad news)"로 받아 들여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증시 입장에서 실물 경제의 부진을 목격하길 바래야 하는 상황.

이런 관점에서 전일 발표된 구인구직 보고서 상 일자리 창출건수(7 월 883 만건 vs 컨센 917 만건)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점은 증시에 호재를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 채용률(6 월 5.7% → 7 월 5.6%), 이직률(6 월 3.6% → 7 월 3.5%) 등 여타 고용지표들도 둔화되는 등 노동시장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임금 포함 서비스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음.

아직까지는 3 분기 성장률 전망이 5%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조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이 "추세 이상의 성장이 추가적인 긴축을 타당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상해볼 필요. 또 1 일(금) 발표 예정인 8 월 비농업 신규고용(컨센 16.8 만 vs 7 월 18.7 만), 실업률(컨센 3.5% vs 7 월 3.5%) 등 메인 고용지표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가 재차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

전일 구인구직 보고서 발표 이후 CME Fed Watch 상 9 월 FOMC 동결 컨센서스는 변함이 없었지만, 11 월 FOMC 의 경우 하루 만에 컨센서스가 인상(28 일 50.9% → 29 일 42.1%)에서 동결(28 일 37.8% → 29 일 52.6%)으로 급변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함. 결론적으로 현재는 실적시즌 모멘텀과 뉴스플로우가 부재한 국면인 만큼, 연준의 추가 인상에 대한 시장의 베팅 변화를 유발하는 고용, 물가 등 지표 의존도가 높아지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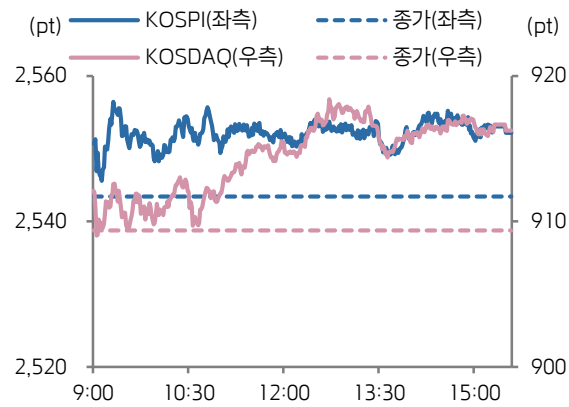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잭슨홀 미팅 이후 안도감 속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나, 외국인의 순매도 속 주 후반 고용 및 PCE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리가 지수 상단을 제약한 채로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8%).

금일에는 미국 일자리수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긴축 불안 완화, 시장금리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강세(+2.6%) 등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 월 이후 20 거래일 중 14 거래일을 순매도에 나서면서 7 월 -1.9 조원에 이어 8 월 -7,000 억을 기록했으나, 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역외 -5 원)이 예상되는 만큼 금일 외국인의 수급 환경도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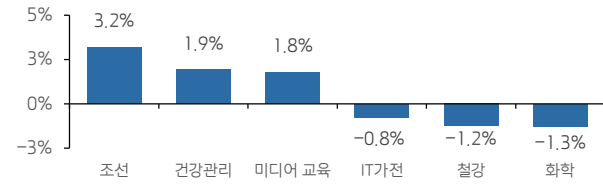
업종이나 스타일 관점에서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엔비디아(+4.2%), 아이폰 15 출시 기대감에 상승한 애플(+2.2%) 등 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및 AI 등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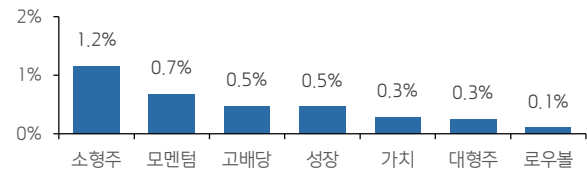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